

전남광주특별시, 농업용수 가뭄대책비 55억 긴급 투입



민형배 시장, 가뭄대책 상황판단회의 주제

/전남광주특별시 제공

민형배 시장, 정부 지원 건의 결과 특교세 45억 확보

자체 기금 10억 추가...취약지역 인력·장비 긴급 지원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등 총 55억 원을 확보해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확보한 재원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와 용수로 말단부, 천수답, 밭작물 재배지역 등 농업용수 공급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가뭄대책비는 지역별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 여건에 따라 ▲양수기·송수호스 등 긴급 급수장비 구입·임차 ▲관정과 간이양수장 등 추가 용수원 개발 ▲하천수 양수와 하상 굴착 ▲용수로 직접 급수 ▲저수지 물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와 긴급 급수에 집중 투입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그동안 가뭄 상황판단회의와 현장점검으로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자원 확보와 현장

대응을 추진해 왔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으며, 중앙부처에도 지역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확보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뭄 취약지역은 현장조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저수율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의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가뭄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가뭄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미리 판단하고 필요한 용수와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용수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지원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가뭄 대응에 나선다.

시군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가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 ‘키라라’ 협업 음원

〈정련 (精鍊, Temper)〉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자음악가 키라라와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에 담긴 철학을 음악으로 만들어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음악가 ‘키라라(KIRARA)’와

협업해 제작한 음원 〈정련(精鍊, Temper)〉을 공개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정련〉은 무쇠가 수많은 단련을 거쳐 하나의 자동차로 탄생하는 과정을 표현한 음악으로, 원료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비로운 도입부와 차체의 모양을 갖춰가듯 점점 더해지는 비트, 마침내 완성된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듯 청명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차량을 만들기 위해 적용된 최첨단 신기술의 느낌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엠비언트 테크노(Ambient Techno)[1] 장르 특유의 글리치(Glitch)[2]와 브레이크 비트(Break beat)[3]를 섞어 정

교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이번 음원 공개는 현대차그룹이 쌓아온 기술 개발의 여정을 음악이라는 감각적 언어로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차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차원이다.

키라라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5장의 정규앨범을 포함한 다수의 앨범들을 기획하고 발매했다. 섬세한 멜로디의 조합을 통해 슬프면서도 신나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키라라의 음악은 90년대 영국의 댄스음악과 2000년대 일본의 전자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키라라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전자음악을 컴퓨터와 미디 컨트롤러를 이용해 연주하는 라이브 셋 공연을 연 30회 이상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라이브클럽과 댄스클럽을 포함,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 SXSW(미국),

Primavera Pro(프리마베라 프로, 스페인) 등의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키라라는 “현대차그룹의 신기술을 표현하는 작업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 처음 신디사이징(Synthesizing)을 배웠을 때처럼 신비로움의 연속이었다”며 “높은 경지에 오른 정교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났을 때 느낀 기분을 그만큼 정교한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